

실무교육 통해 경쟁력 UP...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눈길’

심화교육으로 전문기술인 육성
일반대학 대비 높은 취업률 기록
대기업 취업·이직 사례 줄이어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거친 뒤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로 꼽히는 ‘네이버’에 입사하거나, 중소기업 비서에서 대기업 회계직으로 전직하는 등 전문 기술인으로 자리매김한 학생들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가 최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졸업생 취업 사례와 전공심화과정의 학과 간 융복합교육과정 등을 발표했다. 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실무와 연계된 직업 심화교육 기회를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학의 교육제도다.

경인여자대학교 광고디자인학과 이은



용인예술과학대 비서경영학과 전문학사과정 문현정 씨(사진)은 중소기업 비서직에서 삼성 KPMG 회계부로 자리를 옮겼다.

비(25) 씨는 경인여대에서 전문학사 과정을 마친 후 2020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했다. 이씨는 세분된 인지도 확보 전략부터 심화한 디자인 기술을 배워 ‘네이버 디자인 패스트 포워드’ 채용 연계형 인턴을 거쳐 UX/UI설계 담당 디자인 파트로 2022년 1월에 네이버 입사를 했다.

이 씨는 “설계자의 임무는, 정보 제공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과 손혜주 씨가 서울국제실협영화제에서 작품 ‘지표(Landmark)’로 수상했다.

/전문대교협

자가 정보를 통해 담고자 했던 마음을 사용자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유의미한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라며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더 세분된 전공의 학업을 배울 수 있었다. 자기 분야에 대해 더 전문적인 실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전공심화과정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비서경영학과 문현정(27)씨는 전문학사 재학 시 중소기업 회장 비서로 조기 취업했고 임원 일정 관리, 회의실, 내방객 전화 응대 등 비서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다시 모교 비서경영학과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문 씨는 2020년 전공심화과정 졸업을 앞둔 시기 삼성KPMG의 회계부 공고를 보고 지원해 합격했다.

문 씨는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더 넓은 영역의 직업군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고 다시 취업할 수 있었다”며 “미래 회계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세무회계, 재경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과 전공심화과정에 재학 중이던 손혜주(27) 씨는 지난해 ‘지표(Landmark)’라는 작품으로 제19회 서울국제실협영화제에서 ‘중운 어워드’ 상을 받았다.

계원예대는 전공심화과정 커리큘럼

을 바탕으로 청년 예술가의 자립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융합예술학과에서는 전공심화과정만의 ‘자립형 청년 예술가’라는 목표로 필요한 3C(연결성, 호환성, 공존 가능성) 모델을 제시해 학과 교육과정에 적용했다.

성기완 융합예술학과 교수는 “이 과정은 순수미술 지향적 과목보다는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의 멀티미디어 과목에서 아티스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전공심화과정은 산업계 요구에 기반한 현장중심 실무교육을 통해 2022년 기준 일반대학 64.2%대비 높은 78.1%의 졸업자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2008년 도입된 지 2월 기준 졸업생 약 12만 명이 배출돼 사회 전반 각 영역에서 전문직업인으로 자신의 역량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시,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소

서울대병원 운영기관 선정

서울시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임신·출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서울대병원’을 장애친화 산부

인과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서울대병원 본관 3층에 설치됐다. 이곳에는 휠체어 이동 공간이 확보된 진료·분만·수술실,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동 침대 등 여성장애인 맞춤형 장비(15종 29대)가 갖춰져 있다.

/김현정 기자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추경 63억 편성... 이자 지원 등 집행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63억 원을 편성했다.

인천광역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 원이 시의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63억 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출 이자 지원 38억 5000만 원 ▲이사비 지원 7억 5000만 원 ▲월세 지원 17억 원 등이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따름이, 대여건수 1.4억 돌파... 3.9억km 누벼

출퇴근 등 주요 교통수단 자리매김
최다 이용 자치구 강서 > 송파 順

서울공공자전거 따름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치구는 강서, 송파, 영등포구였다. 주 수요층인 젊은 직장인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시 근거리 환승이동수단으로 대거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2월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 공공자전거 따름이의 누적 이동 거리가 지난달 말 기준 3억8700만 km를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구에서 달까지 약 510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다.

누적 대여건수는 1억4000만건을 넘어섰다. 연간 이용건수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급증해 2022년 4095만건으로 2021년 3205만건 대비 27.7% 늘었



따름이 이용 모습.

/서울시

다. 겨울철 비수기에도 따름이 일평균 대여건수가 5만건(올 1월 기준)을 웃도는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권을 구매해 이용하는 고정 수요층도 늘고 있다. 최근 3년(2020~2022년) 정기권 이용 비율은 2020년 74.8%, 2021년 77.9%, 2022년 80.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김현정 기자 hjk1@

서울시, ‘반복·다수인’ 민원해소 팔 걷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서울시가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방식을 손질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동일 민원을 3회 이상 제기해 종결 처리된 건수는 총 7309건에 달한다.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반복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이에 대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대부분 민원행정 추진사항 보고

등으로 민원을 조정·해소하는 심의 안건이 없었다”며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령·조례 등 개정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은 연 1회 이상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반복·다수인 관련 민원이 재접수되면 재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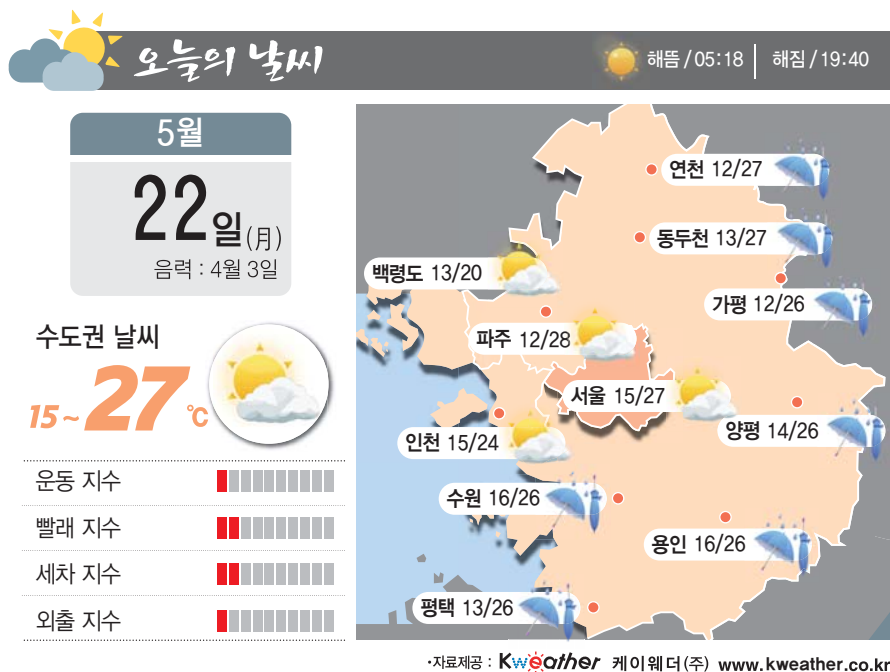
삼육대 맞춤형 학사지원시스템 구축

삼육대학교가 유연학기제, 집중학기제, SU-이노베이션데이 등을 골자로 한 학생맞춤형 학사지원시스템 ‘SPACE 시스템’을 구축했다.

21일 삼육대에 따르면, ‘SPACE 시스템’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것으로 삼육대만의 독창적인 창의·융합적 학사구조다.

학사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 공간(space) 전체를 창의융합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현진 기자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초·중학생 학부모 88% “자녀, 이과로 진학 희망”
▲ 상체 15도 숙여 경례·악수편 차렷자세로...소방관 예절규정 폐지 /사진 뉴시스

▲ 강남 납치살인·JMS 수사팀, 대검 우수사례 선정
▲ ‘연 26조’ 사교육비 치솟는데...‘부모 찬스 지표’ 개발 지지부진



▲ 오페수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10년간 154명 사망
▲ 전동킥보드 화재 급증, 5년 만에 23배...“충전 때 가장 주의” /사진 뉴시스